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리제너론(Regeneron)이 생명 공학 분야의 일자리 1,500 개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

주도 지역으로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8억 달러를 투자하는 뉴욕의 최대 생명 공학 회사

뉴욕주에서 기존의 리제너론(Regeneron) 일자리 5,400 개에 추가되는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의약품을 발명하고 생산하는 선도적인 생명 공학 회사인 리제너론(Regeneron)이 자사의 렌셀러 카운티 캠퍼스(Rensselaer County campus)에서 실험실 공간, 생산 능력, 창고 시설 등을 확장하고, 그레이트 주도 지역에서 1,500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7년간 약 8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제너론(Regeneron)이 뉴욕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의 공제액 7,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최대 1억 4,000만 달러의 실적 기준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생명 과학 산업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뉴욕은 리제너론(Regeneron)과 같은 글로벌 생명 공학 리더들의 본거지입니다. 뉴욕 여기에서 리제너론(Regeneron)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 과학의 길을 이끌고 있으며 미래의 일자리를 유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리제너론(Regeneron)의 확장은 주도 지역의 경제 성장을 더욱 추진하며, 전 세계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생명을 구하는 혁신과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리제너론(Regeneron)은 뉴욕의 타리타운에 본사를두고 있으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학 기반의 생명 공학 회사입니다. 리제너론(Regeneron)은 1988년 뉴욕시에서 생명 공학 스타트업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당시 주지사였던 Mario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이 회사에 25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후 수년만에 뉴욕주는 이 투자로 300%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리제너론(Regeneron)은 뉴욕주의 최대 생명 공학 회사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 공학 회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포브스 매거진(Forbes Magazine)은 리제너론(Regeneron)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상위 10 위 안에 드는 혁신 기업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리제너론(Regeneron)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의학박사인 Leonard S. Schleif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제너론(Regeneron)은 30년 전에 자랑스러운 뉴욕의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뉴욕을 혁신적인 생명 과학 회사를 구축하고 확장시키는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의 행정부가 계속 공약을 실천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승인된 의약품과 조사 연구 중인 의약품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팀과 생산 시설에 대한 저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다른 주 및 연방 정부의 정책과 함께 리제너론(Regeneron)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뉴욕주에서 저희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한다는 저희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Cuomo 주지사는 진드기 매개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신규 민관 연구 협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워즈워스 센터 연구소(Wadsworth Center Laboratory)와 리제너론(Regeneron)은 라임병(Lyme disease)을 비롯한 진드기 매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잠재적인 진단, 예방, 치료법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제너론(Regeneron)과 워즈워스 센터 연구소(Wadsworth Center Laboratory)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 때 병의 원인 인자인 박테리아 *Borrelia burgdorferi*가 어떻게 질병을 옮기는지와 숙주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공동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로 진단법 개선, 예방 및 신규 치료법 개발이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제너론(Regeneron)은 5년 동안 해당 연구에 최대 4,8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주는 리제너론(Regeneron) 연구 비용의 50 퍼센트를 보전하여 뉴욕주 생명 과학 프로그램(New York State Life Sciences Initiative)을 통해 총 2,400만 달러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명 과학 프로그램(Life Sciences Initiative)을 통해 최대 600만 달러를 워즈워스 센터 연구소(Wadsworth Center Laboratory)에 지원할 것입니다.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생명 과학 프로그램(Life Science Initiative)

2018 회계연도 예산(FY 2018 Budget)으로, 뉴욕주는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생명 과학 연구 클러스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를 상업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이 다각적인 계획에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를 전반적인 생명 과학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1억 달러, 생명 과학 연구 및 개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위한 1억 달러, 기타 투자 형태의 3억 2,00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습식 연구실 및 혁신 공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에서 조성된 최소 1억 달러의 추가적인 매칭 펀드를 활용하는
초기 단계의 생명 과학 회사들에 대한 투자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의 자본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는 바이오기술, 의약품, 바이오메디칼 기술, 라이프 시스템 기술 분야를
포괄하며, 노력의 대부분을 다양한 단계의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에 투입하는
조직과 기관도 포함합니다. 매일매일, 이 분야의 회사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또는
자폐증과 암 등의 질병의 조기 검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의료 및 제약 돌파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농업 및 환경
바이오기술 분야에서도 현저한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설에 투자하며, 인재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뉴욕은 산업계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뉴욕의 지분율을
현저히 증대시키고, 기존 학문적 연구의 상업화를 지원하며, 차세대의 고급 기술이
도입되게 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넘어서, 이 계획으로 제조업 기반의 신흥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지역으로 뉴욕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